



4월8일
목요일

보 도 자 료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국	농식품유통과	과장	강 종 철	팀장	서 동 순	☎	286-6420
----	--------	----	-------	----	-------	---	----------

순천시, '21년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본격 시행 준비 박차 -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순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푸드플랜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유통뿐만 아니라 소비, 식생활, 영양, 폐기 등 먹거리 관련 모든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계획으로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농산물의 지역 내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확대,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및 직매장 지역·가공품 판매확대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급식지원센터와 같은 공급기반 시설부터 농가교육, 안전성 검사비, 직매장 홍보에 이르기 까지 푸드플랜 실행에 필요한 사업전반을 지원받게 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수요가 더욱 더 커질것이라며, 로컬푸드를 통한 먹거리의 지역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잘 협조해 중소농 소득안정,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도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19년 나주시와 해남군을 시작으로 ’20년 장성군이, 올해 순천시까지 총 4개 시군에 총 182억의 국비를 받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